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0205
----------	-------

발의연월일 : 2025. 4. 29.

발 의 자 : 김준형 의원

찬 성 자 : 2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양안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해협 일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외교·군사 정책을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양안 분쟁 동원이 곧 대한민국의 분쟁 개입으로 귀결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를 수

용하여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국권 상실과 강제 병탄의 역사적 비극의 원인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120년을 맞이한 시점에, 또다시 일본이 주도하여 대만해협 등의 분쟁을 이유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지구(One Theater) 구상’이라는 위협천만한 시도를 단호히 배격·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 간 대리전 성격의 무력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

미국은 대만에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거나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만의 군사력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중국은 미국과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대만 인근 해협에서 대만 포위 연합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중의 어느 한 편에서 구체적인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양안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표명하길 촉구하고 안보 관련 외교·군사 정책 추진의 범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며, 미국에 ‘주한미군의 역외 분쟁 동원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양안 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뜻을 전 세계에 명확히 전하고자 함.

또한, 을사늑약 120년을 맞는 올해,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강대국들의 대리전장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결의안이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인근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충돌 가능성도 낮춤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